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8

성모기사

09



9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순교선열들의 신앙과 열정을 본받아 하느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증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9월을 시작하며 02
김용기

수난의 신비 08
한규희

코페르티노의 성 요셉 16
구원모

벼이삭의 겸손 21
박영철

말씀묵상 22
최창원

봉사하는 날 24
김종국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26
신재희

나가사키에서 수도생활하기 35
이신형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40
권정대

함께하는 이모저모 51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사 38:10)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9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건안드레아

벌써 9월입니다. 예전에는 9월이면 가을이 느껴지곤 했는데, 아직 덥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져서 이젠 여름의 끝자락이 바로 겨울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좋은 것들도 많지만, 그만큼 반갑지 않은 것들도 꽤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에 물려서 가려운 것도 귀찮고 번거롭지만, 사실 제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잠들기 전에 귓가에서 웅~ 하고 들리는 모깃소리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더운 날씨 때문에도 잠을 청하기 쉽지 않은데, 모기까지 덤비면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맙니다.

작년부터 모기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갑갑할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모기장보다는 모기향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기향에 내성이 생긴 모기들의 공격을 견디기가 힘들어졌고, 모기장을 쓰게 되었는데… 이걸 왜 지금껏 안 쓰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만큼 효과를 잘 보고 있고, 그리 갑갑하지도 않습니다.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모기에 물려서 가려운 부분들을 긁으면서 짜증이 날 때 떠오르는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피정 프로그램으로 “순교자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기도 양식을 만드느라 순교자들의 전기나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다블뤼 주교님의 서한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는 감방이나 다름없는 초라한 오막살이에 함께 있습니다. 제일 더운 때인 7월에 부엌 아궁이로 켜 없이 불을 때는 방에 있기란 여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방안에서 밤을 지내려 해 보았습시다만, 무슨 것들이 어떻게나 많은지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밖에 나가 집 뒤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비 석 자 쯤 되는 돛자리가 2개월 동안 밤낮으로 우리의 침대 구실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돛자리는 축축한 땅에 깔려있고, 이 계절에 자주 내리는 큰비가 올 때엔 다른 또 한 장의 돛자리가 차양이 됩니다.”

이 글이 왜 그리 기억에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통해서 그 당시 신앙의 선조들이 보냈던 여름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지곤 합니다. 젖은 장작에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 그리고 눅눅하고 축축한 방바닥, 높은 습도와 열기로 가득한 여름 더위, 거기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해충들과 그로 인한 괴로움… 상상만으로도 몸

서리쳐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견뎌내면서도 그 분들이 살아내고자 했던 신앙의 진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순교는 말 그대로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순교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증거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숭고한 봉헌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순교 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죽는다”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그런데 “죽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주로 쓰이는 “생명이 끊어지다”라는 의미 외에도, “(기운이나 생기 따위가) 꺾여 없어지거나 누그러지다”, “(기계 또는 움직이던 물체가) 작동되지 않거나 움직임을 멈추다”, “(물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색이나 특징을 잃다”, “(폴 따위의 뻗뻗한 기운이) 가라앉은 상태가 되다” 등의 많은 뜻이 있었습니다.

“죽음(죽다)”라는 단어가 가진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서 순교의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교도 있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누그러뜨리는 순교도 있고, 세속적인 길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멈추

는 순교도 있으며, 자기의 고집이나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순교도 있습니다. 비록 목숨을 바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이러한 “죽음들”도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위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죽이는 이러한 죽음들을 “삶의 순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 가운데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인 사건 가운데 “계유정난”이 있습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세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잡았던 사건입니다. 세조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단종의 측근이었던 김종서나 황보인, 또다른 왕족인 안평대군을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잡았으니 그 정통성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고, 이후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유신이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현전 출신의 유신이었던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는 세조를 몰아내고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 하다가 발각되어 죽음 당하게 됩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들의 충절을 기려서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비록 사육신처럼 목숨을 바치지지는 않았지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켰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서 살았습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

효온 등의 인물입니다. 이들의 재주를 아깝게 여긴 세조가 벼슬이나 물질적인 재물로 그들을 등용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단종에 대한 충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은 비록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념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박해시대를 살면서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했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으로써 신앙을 증거해야 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이런 “삶의 순교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매 순간 순간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순교영성이 우리에게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르는 방법은 “삶의 순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기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수난의 신비

한규희 보나벤투라

재판받으실 때 그분이 보여주신 의연함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배반자는 마음이 지극히 완고해져서 최후의 만찬 때의 친밀함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봉사의 행위도,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말씀도 그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에게도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십니다. 악의에 가득 찬 유다의 입술이 한 점 거짓도 찾아볼 수 없는 당신의 입술에 닿는 그 순간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유다에게 완고한 마음을 돌릴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수난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시며 번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과 정신은 심판하고 보복하는 하느님의 얼굴 앞에서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죄를 향한 아버지의 분노가 죄를 스스로 짊어진 자신에게로 향함을 보았고, 아들을 ‘버리는’ 거룩한 아버지의 등 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겟세마니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고뇌에 싸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루카 22,44)

이제부터 수난의 장미가 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피땀으로 우리는 나약함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몸 전체, 즉 교회의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하느님에 의하여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셨습니다. 배반자가 피에 굶주린 이들을 인도하여 나타났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오”라고 의연히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질문도, 지시도 하지 않고 가야파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첫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첫 심판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否認)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인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에게 매 맞으시고 조롱감이 되십니다. 이렇게 그분의 심판은 인간의 비열함과 나약함, 잔악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에서 예수님은 가야파 앞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 보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선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학대받으실 때 그분이 보여주신 인내심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친 제자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충실했던 베드로의 부인,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유대인들의 거부 속에서 가야파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집니다.

제관들은 그리스도를 결박하여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서 “죄를 모르는”(2고린 5,21)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재판관 앞에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

럼(이사 53,7참조) 고요하고 온순하게 서 있을 때 거짓말쟁이들과 악당들은 여러 거짓 죄목들로 그분을 고발하였습니다.

사악하고 어리석은 그들은 빌라도의 제의에서 어린 양이 아니라 늑대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빛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사형에 처할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판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권능 또한 하느님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심은 우리도 복된 성부께서 내리는 매질을 용기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도망치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껴안아야 합니다.

이제 그분의 몸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파멸이라는 정당한 선고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흠 없는 어린 양이 기꺼이 부당한 선고를 받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이 흠치지 않은 것을 우리를 위해 보상해 주심을 보아야 합니다.(시편 68,5참조)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가슴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의와 동정심을 그분께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여야 합니다. 선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인내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당하실 때 그분이 보여주신 용기

빌라도는 사악한 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불경한 병사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주위에 전 부대를 모았습니다.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붉은 망토를 둘러 걸치게 했습니다. 또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얹어 놓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며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또 그분에게 침을 뱉은 다음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쳤습니다.(마태 27,27-30)

우리의 왕이요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를 영원한 비참에서 구하기 위해, 교만이라는 대죄에서 구하기 위해 마치 나병 환자처럼, 또는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이사 53,4,3참조) 취급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보여주신 지극한 겸손, 인내를 통하여 드러나는 용기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한 삶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손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병사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날카로운 못으로 꿰뚫어 그 잔인하게 찢긴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옷을 한 몃씩 나누어 가지고 술기 없이 통으로 짠 속옷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꿰뚫리었을 때 흘러내린 성혈에서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로 물든 그분의 육체는 가장 열렬한 사랑의 표징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수난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 열렬하고자, 다른 하나는 더 진홍빛으로 물들고자 겨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 높이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자비를 간청한 강도는 그분에게서 영원한 천상 행복을 약속받지만, 그분을 다른 무지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조롱한 다른 강도는 어두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채 죽고 맙니다.

‘Passion of Christ’에서 이 부분을 묘사할 때,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가 까마귀에게 두 눈을 파먹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당시의 진리에 눈 먼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

도의 모든 수난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수난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무수한 상처를 받아 돌아가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든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고통의 물결이 당신의 영혼까지 흘러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

그리스도의 수난은 이제 그 절정, 곧 죽음에 다다랐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라는 말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자 하늘은 그 빛을 잃었고, 샘은 말라 버렸으며, 땅은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옛 아담으로 인해 끊어졌던 하느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이제 새 아담의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느님이, 주님이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교회가 형성되도록,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이를 바라보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섭리는 한 병사가 그분의 신성한 옆구리를 창으로 찢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의 대가로 피와 물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분 심장 깊은 곳에 있는 샘에서 용솟음쳐 나와 교회의 성사들이 은총의 생명을 베풀 수 있도록 풍부한 효력을 제공하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주 그리스도는 한없이 흘러내리는 당신 자신의 피로 불게 물들었습니다. 고뇌의 땀으로, 병사들의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못으로, 마지막으로 창에 찔림으로 인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군중의 외침에 따름으로써 덧없는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이라는 옷을 박탈당하고 죽음의 감옥으로 내려가기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무덤 안에, 죽음의 깊은 어둠 속에 묻히셨습니다.

코페르티노의 성 요셉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13세기에 아시시에서 시작된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많은 성인·성녀가 수도회를 통해 배출됨으로써 나태와 향락의 분위기가 만연했던 당시 사회에 참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신은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에 축일을 기념하는 코페르티노의 성 요셉이 그 증인입니다.

이탈리아의 코페르티노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젊은 나이에 구두공장의 견습공으로 일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모님을 통한 주님 은총으로 요셉은 건강을 회복했고,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고자 17살의 나이로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를 청했습니다. 그

러나 거절당했고, 카프친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눈치가 없고 무식한 요셉은 8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은 요셉을 가족의 수치로 여겨서 밥벌레라고까지 욕하며 냉대했습니다.

가족들도 받아주지 않은 요셉은 그로텔라의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마부 노릇을 하면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가입합니다. 그렇게 17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도회의 수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천한 일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성심성의껏 노력했기에 장상의 인정을 받아 사제가 되기 위한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자질은 없었으나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1628년에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품을 위한 시험 때, 앞 신학생들이 너무 답변을 잘해서 기분이 좋아진 주교님께서 수험생들을 모두 합격시켰다는 경우와 성모님께서 시험 문제를 알려주셔서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경우의 두 가지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여기서 시험을 앞둔 이들의 수호자(주보 성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깊은 관상 생활을 한 요셉은 사제가 된 후 첫 미사를 지낼 때 탈혼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탈혼 상태는 종종 발생했기에, 이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 요셉이 공중에 떠서 탈혼 상태에 자주 빠지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할 때 혹은 십자가의 옆구리의 상처만 보아도 즉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탈혼 상태에서는 몸이 공중에 뜨면서 외부와의 감각이 모두 중단되면서 오직 하느님과의 교감에 따른 환희를 느끼는데, 그럴 때라 할지라도 장상이 부르면 순명에 따라 즉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영성지도와 기도를 청하고,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일례로 개신교였던 독일 브라운 슈와이히의 공작 요한 프리데리코가 1650년에 아시시에서 요셉이 집전한 미사에 참여하고 감동을 받아 천주교로 돌아온 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의 모함으로 요셉은 이단의 의혹을 받게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상은 요셉에게 아시시에서 은둔하라고 명했습니다. (요셉이 아시시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장소는 지금까지도 잘 보존

되어 있습니다.)

아시시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명성이 전 유럽으로 계속 퍼져나가자,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피에트라모 수도원으로 옮겨갔고, 이후 포솜로네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도중, 교황 우르바노 8세께서 직접 요셉을 찾으셨습니다. 교황님을 만난 후 그는 모든 의혹과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교황은 요셉의 검덕을 칭찬하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기도와 지도를 청했습니다.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그에 따른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은 요셉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오시모 수도원으로 1657년에 가게 됩니다. 1663년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요셉은 자기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후 60세의 나이로 잠자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1767년에 시성되었고, 요한 23세는 그를 비행사의 주보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공중 여행자와 비행조종사들의 수호성인이고 시험을 앞둔 이들의 수호자로 불립니다.

성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함, 그분을 끊임없이 찬미함, 앞장서서 좋은 일을 하여 이웃에게 모범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하며 부유합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매우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하늘의 새가 먹이를 얻으려고 땅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날갯짓하는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종도 이처럼 꼭 필요한 만큼만 땅에 머물고 즉시 영으로 하늘에 올라 하느님을 기리고 찬미해야 합니다.”

성인을 본받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어머니,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위하여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어 줄,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도다.”

벼이삭의 겸손

박영철 요셉

언젠가 나는 펼쳐진 하늘을 보며
너처럼 넓은 마음을 간직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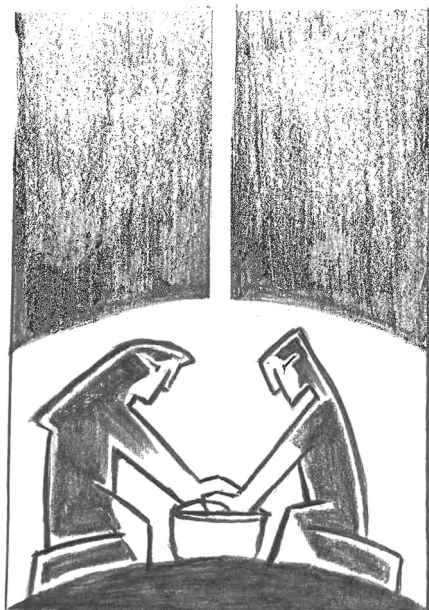
언젠가 나는 무르익은 벼이삭을 보며
너처럼 겸손해지리라.

넓은 들판을 황금빛으로 만드듯이
나도 사랑의 황금빛으로 옷 입으리라.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주님, 동정녀 탄생 축일을 지내는 주님의 종인
저희에게 천상 은총의 선물을 내려 주시어
길이 참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본기도)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4-5)

봉사하는 날

김종국 요셉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은 무엇일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일까?

온유하게 살아가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일까?

가진 것 다 팔아 나누어 주고서
당신을 따르라 하신 말씀에

주님께서 거저 주신 작은 것들
이웃들과 나누고 바퀴쓰니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우리 것 되었네

괴롭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들어주고 안아주니 아픔은 사라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네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다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

때로는 한 치 앞길도 내딛지 못하고
하느님의 도움 없이 아무 것 할 수 없다
진정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 맡기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며 살겠다며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 봉사한 오늘도

내 눈에 들보 큰 빼내기 위해서
성체 앞에 무릎 꿇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원죄 없으신 성모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를 닮아
주님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성모 마리아와 함께 가게 하소서

아멘!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신재희 베드로

힌두교

기차 안에서 성호경을 긋고 기도하고 있는데, 맞은편 인도 청년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 그러더니 가방 안에서 조그마한 입상을 꺼내 이마에 갖다 대고서 자기 앞에 두고 합장하며 기도한다. 기도를 끝내고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청년도 나에게 웃으며 인사하였다. 조그마한 입상에 관해 설명을 부탁했더니 크리슈나라고 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이라고 하였다. 내가 천주교인이라는 것을 말한 후, 대화를 나누다보니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크리슈나 외에도 인도의 국교인 힌두교에는 많은 신이 있다. 그 중 3대 신은 창조를 맡은 브라흐마, 유지를 맡은 비슈누, 파괴를 맡은 시바이다. 유지를 맡은 비슈누 신은 화신(Avatar)으로 유명하다. 화신은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 세상을 구한다. 열 명의 화신이 있으며, 석가모니는 9번째 화신이다. 마지막 화신인 칼킨(Kalkin)은 아직

주1) 크리슈나(Krishna)는 힌두교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영웅이다. 비슈누의 여러 화신 중 하나로 여겨진다.

나타나지 않았다.

힌두교는 인생을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브라흐마차리야(학생)’로 배우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그리하스타’로 가정을 이루며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바나프라스타’로 처자식 부양과 사회활동을 점차 정리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산야사’는 세속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수행을 하며 다음 삶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인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힌두교를 이해하여야 한다. 힌두교는 인도에서 창시되었고, 인도의 문화와 함께 생겨난 종교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신이 존재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 특히 자연에 대한 경외와 찬양 그리고 그에 대한 숭배가 깃들여 있다.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존중받고 숭배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

마더 하우스

인도에 머물면서 뜻깊은 시간을 꿈으라면, 콜카타의 어머니 데레사 수녀님께서 시성되신 날을 꿈꿀 수 있다. 2016년 9월 4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집전으로 데레사 수녀님의 시성식이 있던 날은 ‘안드라’주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대신학교 강당에 모여 그 기쁨을 함께하였

다. 바티칸에서 시성식이 있었기에 그 영상을 중계하는 것 만으로도 그곳 안드라주에 모인 많은 수도회 형제자매가 기쁨을 함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 주교님이 집전하시는 미사를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누었다.

교황님은 시성식 강론에서 온 생애를 통해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나누어준 성녀를 기억하며, 성녀를 통해 이해와 자비를 바라는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하셨다. 그리고 9월 5일 데레사 수녀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축일로 지내게 되었다.

이날을 떠올리며 다르질링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콜카타로 향했다. 콜카타는 데레사 성녀가 수도 생활했던 곳이자 생을 마감하신 곳이다.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와 죽음을 기다리는 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곳이 마더 하우스이다.

그곳으로 향하기 위하여 또다시 기차에 올랐다. 글라라 회 수녀님을 만났던 기차는 창문도 없는 창살만 있는 기차칸에다가 에어컨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창문도 있고 에어컨도 나오는 기차여서 나름(?) 호사로웠다. 그런데 몸이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도는 것이 문제였다.

기차가 달리는 내내 맨 꼭대기 침대칸에서 누워 잠만 잤다. 끼니마다 승무원이 나를 깨워 도시락을 주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잠만 자다 보니 어느새 콜카타에 도착해 있었다. 기차에서 내리는 엄청난 인파에 밀려 밖으로 나와서 바라본 풍경은 인도의 대도시답게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질서가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지만, 내 가슴은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번잡하고 혼잡한 그곳에서 서로가 부대껴 살면서 펼쳐지는 인생이 이제는 조금씩 와 닿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인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걸인들, 집 없는 이들, 힘없이 축 늘어져 길바닥에 누워있는 이들이 보였다. 길거리의 개들은 만만한 게 그들인지 항상 노숙자들에게 더 사납게 짖어댔다.

여행자 책자의 지도를 보며 찾아간 마더 하우스에서 가장 먼저 날 반갑게 맞이한 분은 성모님이었다. 어머니의 집은 성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닮아있었다. 그곳은 많은 봉사자와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콜카타의 마더하우스는 지금은 유명세로 전 세계 각국 사람이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곳에서 그룹을 이루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위한 설명서에 한글이 있을 정도로 많이들 찾아온다고 한다.

그중 한국에서 온 내 또래 형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형제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는데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연로한 할아버지들을 보살피는데, 식사를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드리는, 단순하면서도 숭고한 일상이었다. 단기간의 활동이지만 봉사를 마치고 주변 국가를 여행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타적인 노력 안에서 삶의 힘을 얻어간다고 말하는 그 형제의 모습 안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그 모습 자체에서 희망과 기쁨을 준다. 그곳에 있는 봉사자들은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소중한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랑과 봉사라는 단어는 참 잘 어울린다. 봉사를 통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자신을 헌신해가며 남을 위해 봉사한다.

콜가타의 어머니 테레사 성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주린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떠도는 가난한 아이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피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였다. 수녀님의 말과 행동으로 전한 사랑의 메시지는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퍼져나가면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드는 인류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강연 중에 테레사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풍족함과 여유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이 존재하고 여유가 아닌 궁핍함이 가득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그 두 배에 가까운 120억 명분이라고 한다. 동시에, 하루에 3만 5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부유한 나라에서는 식량을 대량으로 폐기처분하기까지 한다. 그 이유는 농산물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선진국의 농업담당 집행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것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굶을 것이라는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제도와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굶주림은 발생한다. 데

레사 수녀님의 말씀처럼 풍족함과 여유에서 생겨나는 결핍은 이웃을 향해 돌아보라는 하느님의 메시지일 것이다.

마더 하우스에서는 기꺼이 그 결핍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삶을 오롯이 헌신한 데레사 수녀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가 되어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사랑의 선교회는 콜카타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있다. 사랑과 헌신,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던 콜카타의 데레사 성녀의 후계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계신 성녀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인도 속의 티베트’로

기차로 인도를 누비고 다니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져 웬만한 숙박지보다 기차 안이 훨씬 더 편하였다. 더구나 콜카타는 숙박시설마다 여행자들에게 비싼 숙박비를 요구하였기에 여러 날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와보리라는 희망을 품고 콜카타를 떠났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1만 편 이상의 기차가 1,0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나르며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인도 철로를 누비며 달린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기차에 몸을 싣고 또다시 하루 꼬박 걸려 텔리로 향했다. 계획 없는 여행은 이끄심대로 향해 가며 특히나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기차 안에서 짜여진다.

예전에 달라이 라마가 쓴 책에서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다. “행복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느냐이다.”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또 내 마음에 담고 싶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묵상하며 여행에 임하게 하였다.

계획을 일부러 이렇게 짠 것은 아니지만 어찌다 보니 히말라야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잇는 여행이 되어버렸다. 다음 목적지는 ‘히마찰프라데시’주에 있는 망명한 티베트국가가 자리한 ‘다람살라(맥그로 간즈)’이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다. 티베트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설립하여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와 함께 1959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히말라야산맥 다람살라에 자리 잡은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는 인도 속의 티베트를 찾아갔다.

나가사키에서 수도생활하기

- 귀신 이야기 -

이신형 요셉

“신부님, 신부님,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저 오늘 귀신 봤어요!!” 성 콜베 지원소에 2년 정도 살았고, 이제는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저녁 시간에 소신학생을 돌봐 주고 있는 한국 형제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내게 달려와 다급하게 이야기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계단에서 위를 올려보니 계단과 계단 사이에서 하얀색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 발이 보여서 미야기 수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아직 미야기 수사님이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시간이었고, 더군다나 윗 층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3층에 있는 제 방문을 누가 두드리길래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작년 4월에 부임해서 2층에 있는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어서 놀랐던 적이 두 번 정도 있었다. 바람 소리였나 싶었지만, 실상은 알 수 없었다.

성 콜베 지원소는 6층 건물인데,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이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큰 은혜도 많겠지만, 특이한

건물 구조 때문에 살기에는 정말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한 층에 유효하게 쓸 공간이 많지 않아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해야 한다. 세탁기와 건조대가 있는 6층, 그리고 침실이 있는 5층과 휴게실이 있는 4층, 공부방이 있는 3층, 그리고 소성당과 내 방과 사무실, 응접실이 있는 2층. 그리고 1층은 성 콜베 기념관으로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소신학교와 기념관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문 자체가 달랐다. 세탁하기 위해서는 6층까지 올라가야 했고, 소신학생이 방에 성경책이라도 두고 왔다면 5층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했다.

손 댈 곳이 많은 성 콜베 지원소 건물은 내게 많은 과제를 넘겨주었다. 잘 막히는 화장실, 그리고 문제 있는 하수 시설, 부서진 전기 콘센트에 이르기까지, 나에게는 소신학생 양성과 함께 성 콜베 지원소 건물을 관리하는 일도 덩으로 주어졌다. 모든 공간을 내가 파악해야 하고, 내가 문을 열고 닫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곳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부임해서 제일 먼저 손 댄 곳은 응접실이었다. 응접실은 곰팡이 냄새 때문에 손님을 들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고, 옆방은 책상과 의자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다. 먼저 창고처럼 되어 있던 방에서 모든 물건을 치웠고, 업자를 불러 응접실과 함께 바닥, 벽, 천장 그리고 블라인드

를 전부 새로 했다. 응접실은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 손님을 맞거나 소신학생들이 고해성사를 보고 면담을 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잡동사니로 가득 차있던 방은 프란치스칸 영성, 성경을 배우는 곳이 되었다. 손 댈 곳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 많았다. 소신학생들 공부방과 침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와 소신학생들이다. 소신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하고, 장소를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나가사키에서 성모기사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 장소를 찾던 콜베 신부님에게 제노 수사님은 우라카미를 추천하셨다. 하지만 콜베 신부님은 우라카미가 아닌 버려진 땅 혼고찌를 선택하셨다. 혼고찌는 지금도 무덤이 많지만, 연고가 없는 시체가 버려지거나 죽은 동물들의 사체도 버려지던 곳이었다. 수도원을 지을 때, 땅에서는 많은 뼈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나온 뼈를 성모기사 수도원 앞 작은 정원에 모시고, 그 위에 성 요셉 상을 세웠다. 성모기사 수도원 형제들의 전통 중 하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 기도를 마치고 올라오다가 이 요셉 상 앞에서 요셉 성인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특히 전쟁 중에 일본 성모기사 수도원은 온전히 요셉 성인에게 봉헌되었고, 요셉 성인 심신

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전쟁 중에 수도원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모기사 수도원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성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잘 생각해 보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도 사부 성 프란치코의 무덤을 비롯해서 많은 무덤이 있다. 어찌 보면 무덤 옆에 사는 것, 무덤 위에 삶의 터전을 잡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었고 습관이었다.

패전 후 일본 전국에는 전쟁고아들이 넘쳐 났다. 자연스럽게 성모기사 수도원에는 전쟁고아들을 위한 집이 마련되었다. 연합군 쪽에 속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었고, 수용소 생활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폴란드 수사님들이 일본인 전쟁고아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었다.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자기 집이 좋았고, 한 아이가 집에 가고 싶어 불을 질렀다. 그 불은 큰 불이 되었고, 몇 명의 아이들이 일찍 천국으로 갔다.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성 콜베 지원소였다. 어찌면 귀신이 나오는 게 당연할 지도 모른다. 소신학생이 나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장 신부님, 스미타니가 5층에서 키시와 마주쳤는데, 3층 공부방에 내려와 보니 키시는 5층에 간 적이 없었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층에서 마주친 키시는 누구죠?”, “그리고 보니 복도에 설치된 전화기가 선이 연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갖은 괴담이 떠돌고 있었고, 그 괴담들은 곧 체험담이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그러한 것들을 무서워했었는데, 어른이 되면 저절로 고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 마흔이 넘었어도, 아직도 무서운 건 무서웠다. 귀신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 만큼은 아무도 없는 성 콜베 지원소 윗층으로 혼자 올라가는 게 많이 꺼려졌다.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타는 나에게,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잡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느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

한국 형제에게 나는 반론을 했다.

“근데 형제님, 귀신은 발이 없지 않나요?”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권정대 베드로

이탈리아에 온 지 두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다른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앞으로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막막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외울 단어는 한도 끝도 없고, 빛의 속도(?)로 빠른 이탈리아어는 몇몇 단어 외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무리하게 공부하다가 잠을 자기 전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결국엔 모든 것이 싫어져 공부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공부를 붙들고만 있구나!’하는 깨달음에 모든 것을 뿌리치고,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성지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라피콤 수도원 근처에는 사도 바오로께서 순교하신 트레폰타네(Tre Fontane)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오로 성인께서 참수형을 당하셨을 때, 목이 땅에 세 번이나 튀게 되었는데, 그 자리마다 샘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순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트레폰타네를 돌아보니 절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머리 형상이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직접 만지고 기도하면서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바오로 성인의 전구를 청하였습니다.

트레폰타네 바로 옆에는 예수와 작은 자매회(Piccole sorelle di Gesù) 수녀회가 있는데, 선배 수사님께서 성체 조배를 드리기에 적합하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다고 권하셨고, 그 공동체에 한국인 수녀님이 한 분 계시니 가끔 찾아뵙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은 복자 샤를 드 푸코의 영성에 기초하여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프랑스 형제 토마 수사님(fr. Thomas Bourquerod)과 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알았습니다. 트레폰타네를 지나 예수와 작은 자매회 공동체를 찾았고, 감실이 열려져 커다란 성체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경당에서 기도에 잠겼습니다.

“주님, 당신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제 뜻을 따른 것은 아닌지요? 과연 저는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나니까?”

성체조배를 마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녀회 경당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수녀님께 혹시 한국인 수녀님이 계신지 여쭙봤습니다. 인사나 드리고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여쭙봤는데, 당시에 수녀회 총회 모임이 있어서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한국인 수녀님(세레나, 크리스티나, 로사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인연에 감사드렸습니다.

수녀님들께서는 흔쾌히 만남에 응해주셨고, 간단한 다과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녀님들께서는 과거 선배 수사님들과 혜화동 수도원에서 자주 만나서 재밌게 잘 지냈다는 옛 추억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들께서 처음 프랑스어를 배우실 때의 고충과 어려움을 설명하시면서, 언어는 시간이 흘러야 자연스레 늘 수 있다며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수녀님들께서 서로 하하 호호 웃으시며 이야기 하실 때마다, 소녀 감성을 유지하신 모습들 속에서도 수도생활 안에서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레나 수녀님께서는 일 년 더 이탈리아에서, 크리스티나 수녀님께서는 프랑스에서 소임을 하시고, 로사 수녀님께서는 모로코로 선교를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도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

에 무척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생각지도 못한 한국 수녀님들과의 깜짝 만남에 힘을 얻었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수녀님들을 통해 절 위로해주시는 주님 은총을 느꼈습니다. 수녀님들과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세라피쿰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로 타(La grotta delle Tre Fontane) 성지를 찾았습니다.

계시의 동정 성모 발현지(La Vergine della Rivelazione)는 1947년 4월 12일 트레폰타네 근처에서 있는 동굴에서, 과거 개신교인이자 가톨릭을 극단적으로 공격했던 브루노 코르나키올라(Bruno Cornacchiola)라는 사람이 성모님 발현을 체험하고 개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브루노는 그의 아내 이올란다 로 갓토(Iolanda Lo Gatto)가 극진한 기도와 정성으로 그를 개종시키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 자원봉사자로 스페인 전쟁에 참여했을 때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톨릭교회와 교황님을 극도로 혐오하고 심지어 십자가와 성상을 태우고 버리는 일까지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루노는 자신의 세 자녀, 이솔라(Isola), 카를로(Carlo), 잔프랑코(Gianfranco)와 함께 트레폰타네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 지금의 성모 발현지 동굴의 장소에서 성모님께서 동정녀가 아니시며, 원죄 없으신 교의가 공상에 불과하며, 성모 승천 교의 또한 같은 망상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주장의 교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아이들은 서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아버지 부루노와 함께 공을 찾다가 아름다운 여인, 곧 계시의 동정 성모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브루노는 성모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있는 계시의 동정녀다. 너는 나를 박해하였고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거룩한 우리로 들어가라. 그곳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법정이고, 변할 수 없는 안식처이다. 십자가의 성 금요일, 나는 네가 거짓의 길에 들어서기 전, 너의 믿음의 신부에 의해 사랑스럽게 너를 구원하였다.”

브루노의 아내 이올란다는 성모님 발현을 목격하고 돌아온 브루노와 아이들의 변화를 인식하고, 남편과 아이들에게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느낍니다. 이올란다는 지난 수년 동안 브루노로 인해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을 용서

합니다. 이후 브루노와 아이들이 체험한 계시의 동정 성모 발현지 동굴(Grotta)에서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브루노는 계시의 동정 성모 발현을 알리는 신심가가 되어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모 마리아와 교황을 수호하는 삶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나아가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는 SACRI(Schiere Arditi di Cristo Re Immortale)라는 활동기관까지 설립합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회와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회심 체험을 많은 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브루노의 헌신은 생전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들을 직접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브루노는 2001년 6월 22일 예수의 성심 대축일에 임종하게 됩니다.

이 성모님 발현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인정을 받아갔습니다. 1956년 교황 비오 12세는 성지 건립을 허락하고,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트레폰타네의 제삼천년기 성모 마리아(Santa Maria del Terzo Millennio alle Tre Fontane)”라는 이름으로 성모 발현지가 교회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처음 방문할 때는 위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지에 있는 십자가와 성모님께서 계신 곳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성모님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도원에 돌아온 이후 저는 반가운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장 보좌로 일하고 계신 백승재 베네딕토 수사님으로부터 두달 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수사님께서는 평소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곳곳에서 회의 및 업무를 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언제 로마에 계신지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졌던 그 당시, 수사님의 연락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수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수사님께서 자주 챙겨주시던 맛있는 한국 음식과 과자로 큰 위안을 삼아 어려운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7월부터 각 나라(루마니아, 잠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슬로베니아, 폴란드)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세라피쿰에서 이탈리아 언어 코스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라피쿰 수도원 밖에 있는 언어 학원에서 단계적으로, 특히 회화를 중심으로 한 수업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단어조차 많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분 만에 A4 크기의 이탈리아어 장문을 읽고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라는 식의 수업 방식은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함께 있었기에 큰 위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퍼센트 완전한 의사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언어를 배우면서 점차적으로 풍성히 친교와 형제애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달의 언어과정을 마치고, 형제들과 함께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5일 간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초기 형제들과 함께 가장 처음 정착하신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의 리보토르토(Rivotorto), 사부님의 유해가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Basilica Papale di San Francesco d'Assisi), 사부님께서 돌아가신 천사들의 성 마리아 대성당과 그 안의 포르치온쿨라

(Santa Maria degli Angeli, Porziuncola), 사부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를 본떠서 만들고 환시를 체험한 그레치오(Santuario di Greccio), 사부님께서 수도회 회칙을 쓰시고, 눈병 치료를 위해 머무셨던 폰테콜롬보(Santuario di Fonte Colombo) 등 사부님 삶의 발자취를 순례하였습니다.

신학생 때, 특히 수련기 가운데 사부님 전기와 역사를 책으로만 접하다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니 뜨거운 감동과 함께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체험을 한 장소는 성녀 글라라 대성당(Basilica di Santa Chiara)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진 녹색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아시시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대성전 앞에서 흰 비둘기 떼가 하늘을 가르며 순례를 온 이들을 반겼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인사말로 쓰셨던 평화(平和)가 무엇인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된 순례의 시간으로 여름 방학 언어 코스를 마치고, 몇몇 형제들은 세라피쿰에서 떨어진 라비냐(Lavigna) 공동체로, 한 명의 형제는 수련을 받으러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수도원(Sacro convento)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나머지 형제들과 세라피쿰에 남아 이탈리아 언어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온지 다섯 달이 지났을 무렵, 저녁 식사 후 우연히 만난 멕시코 형제 안톨린(Fr. Antolin Maria Ramos de la Cruz) 수사님과 함께 수도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톨린 수사님은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왔고, 저는 천천히 하나씩 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듣기 힘들고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이탈리아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듣고 대답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식사시간에 형제들이 대화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곰곰이 듣고만 있어야 했던 제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초기 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학 안에서 건디기 힘들고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절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형제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를 통해 저를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도구로 손질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심오한 계획에 따라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19-20)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로마유학

성소자 여름 모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소자 여름 모임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들이 모여 자신의 성소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수도 성소가 주님 뜻 안에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꽃 하계수련회

2018년 7월 20~22
일 3일간 부산 예수 마
리아 성심 수도원에서
성모기사회 ‘작은 꽃 하
계 수련회’가 있었습니
다. 끈벙뚜알 프란치스
코 수도회 윤지영 하비
에르 수사, 진동길 마리
오 수사, 최우식 프란치
스코 수사,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
스코 수녀회 김석화 골
롬바 수녀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최우식 수사의 인
솔하에 울산병영 순
교성지를 방문했고,
한국천주교회사 특
히 순교사회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
습니다. 또한 태화
강 십리대숲을 걸으
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곶벵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앙 특강

- 기 간 : 2018년 10월 4일 ~ 11월 22일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중식 제공
45분 강의 - 10분 휴식 - 45분 강의
- 장 소 : 한남동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대강의실
- 강사진 : 최문기, 구원모, 서영섭 수사
- 강의료 : 중식비를 포함해서 전체 18만원이며,
회차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강의는 선착순 50명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 강의 신청 접수 및 강의료 계좌
(반드시 입금자를 수강자 본인 이름으로 해 주세요!)
KEB하나은행 352-910019-52504
천주교곶벵뚜알성프란치스코수도회
- 전화 문의 :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문의 가능)

● 일정표

회차	일 시	강 의 주 제	강 사	장 소
	10/4 9:30	개강 미사와 오리엔테이션	관구장 정진철(마르코) 수사	수도원 성당
1	10/4 10:30	희망과 절망	최문기(마티아) 수사	피정집 대강의실
	10/11 10:30	죄와 벌		
	10/18 10:30	고통과 구원		
	10/25	휴강 (관구회의)		
2	11/1 10:30	성경에 담긴 마리아 영성	구원모(콜베) 수사	피정집 대강의실
	11/8 10:30			
3	11/15 10:30	성 프란치스코 영성으로 바라본 회칙 찬미받으소서	서영섭(아오스딩) 수사	피정집 대강의실
	11/22 0:30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와 교황 문헌		
	11/22 12:10	종강 미사	정진철(마르코) 수사	수도원 성당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세상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만 55세 이하, 성실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 모임 일자

비 안 네 회: 매월 둘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보나벤투라회: 매월 둘째 토요일 09:00 ~ 14:00 (점심, 미사포함)

콜 베 회: 매월 셋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요 셉 회: 매월 셋째 토요일 10:00 ~ 15:00 (점심, 미사포함)

● 장 소: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내 안토니오 회관

● 전화 문의: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문의 가능)

수도원 효소단식 피정



- 기 간 : 1차 09월 4 - 6일 / 2차 09월 11 - 13일
3차 10월 2 - 4일 / 4차 10월 16 - 18일
- 장 소 : 양평 문호리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골베마을)
- 문 의 : 최영선 수사 010-5385-2506 / 031-771-6138
- 선착순 10명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새 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뀐 후 기사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사무실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는 집에 오는 다른 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림)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31-771-6134) → 자동이체 신청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수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소후원회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르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수도성소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칙 1장)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수도 회원들은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 안에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영적인 친구’를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벳’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벳’이 되어 주십시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 원하는 형제들은 관구 봉사자들에게 갈 허가를 청할 것입니
다.” (회칙 12장)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벗을 기다
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정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8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0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9월 통권 500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끈뎀두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당신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님이시나이다.”
(하느님 찬미 3)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